

# “우리 민족의 역사적 과제는 분단극복”

「民族主義原論」 펴낸 車基璧 교수

민족주의 연구에 남다른 열정을 보여온 차기벽교수(성균관대, 정치학)가 정년을 맞아 기왕의 학문적 성과를 집대성한 「民族主義原論」(한길사)을 상재, 학계의 화제가 되고 있다. 민족주의에 대한 최근의 연구동향분석을 비롯해 민족주의의 개념과 역사, 국제주의 및 공산주의와의 관련성, 그리고 제3세계 민족주의의 과제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이 책은 특히, 민족주의 연구의 이론적 성과와 역사적 시각을 한국사회에 적용한 「한국과 민족주의」를 보론으로 실고 있어 눈길을 끈다.

지난 30여년간 한차례의 ‘외도’없이 대학강단을 지켜온 차교수는 현실 정치판의 유혹에 휩쓸리지 않은 ‘지조 있는 정치학자’로서 후학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아온 까닭에 이번 책의 간행이 갖는 감흥이 남다른 것이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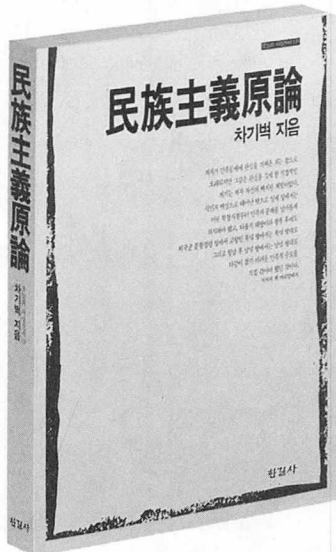
“제가 줄곧 말해온 학자의 ‘삼권분립’이란 돈과 명예, 권력 가운데 학자는 명예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학자가 무리하게 ‘삼권통합’을 꾀하다가는 학문적 무덤을 파기 쉽지요. 정년을 대학강단에서 맞이했다는 것은 학문연구의 종지부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저 자신이 얼마나 삼권분립에 충실했는가를 되돌아보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계기로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 자신의 체험을 학문영역으로 ‘승화’시켜

폭넓은 정치학 연구영역에도 불구하고 집요하리만큼 민족문제에 매달려 온 차교수는 그 까닭을 격변의 근대사를 온몸으로 겪은 그 자신의 ‘뺨저린 체험’에 있다고 말한다. 1924년 평안북도 용천生인 차교수는 식민지시대를 거쳐 민족분단이 초래한 비극의 현장을 목격한 체험을 자신의 학문영역으로 ‘승화’시킨 보기도문 학자에 속한다.

“제가 민족주의에 관심을 갖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민족적인 모멸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청년기를 식민지 시대의 민족차별 속에서 보냈고, 자주적인 힘으로 쟁취하지 못한 해방이 가질 수밖에 없던 외세의 재등장이 저로 하여금 더욱 민족문제에 대한 학문적 천착으로 이끌어갔습니다.”

기독교에 의해 개화된 용천 출신답게 차교수는 일찍이 민족문제에 눈뜨게 되는 분위기 속에서 성장했다. 신의주교보를 다니던 청년 시절엔 주위 인척들이 대부분 민족적인 색채가 강한 오산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어 이들의 영향



차기벽교수

도 많이 받았다고 한다. 특히, 고보 5학년시절에 일본수학여행을 다녀온 뒤 쓴 기행문형식의 일기가 발각되어 차교수는 ‘사상적 문제’로 찍히게 되었다고. 내선일체를 강요하던 당시 분위기에 정면도전하듯, 두민족 사이의 차이점을 예리하게 부각시킨 이 글로 한때 ‘법적 처리’가 논의될 정도에 이르렀으나 의식 있는 일인교사들의 도움으로 겨우 무마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청년 차기벽의 ‘청운의 꿈’을 산산히 부수고 만다. 우수한 성적으로 고보를 졸업한 후 수학박사가 되고자 경성제국대학에 응시했지만 前歴이 문제가 돼 낙방하고 만다. 민족차별의 희생양이 된 차교수는 실력으로 그 벽을 넘어서고자 ‘재수’까지 했지만 또 한차례 낙방, 지금의 서울대 상대의 전신인 경성상업학교에 입학해 제기동부근에서 하숙을 하게 된다. 이때 하숙집주인이 무명의 민족주의자인 손준모씨로 차교수에게 민족의식을 불어 넣어준 ‘은사’다.

“퇴역기자였던 손선생의 격려로 감상적인 차원에서 벗어나 좀더 논리적으로 민족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우리말로 씌어진 글을 찾아 읽는 열정도 손선생으로부터 ‘감염’됐습니다.”

당시 영향을 한시도 잊어버리지 않고 있던 차교수는 자신의 저서인 「한국민족주의의 이념과 실태」(까치, 1978)의 서문을 손선생에 대한 회상으로 대신, 그 빛의 일부분을 뒤늦게나마 갚았다.

## 우리 민족의 역사적 과제는 통일

2차대전 말기 징병으로 끌려가 중국땅을 밟았던 차교수는 해방 후 귀향, 40일동안 북한

에 머무르면서 사회주의화되는 북한의 실상을 목격하고 구사일생으로 남파하게 된다. “해방 이후에도 고향인 북녘은 북녘대로 월남후 남녘 땅에서는 남녘땅대로 해방된 민족의 기쁨보다는 다같이 참기 어려운 민족적 수모를 겪게 되었습니다.”

식민지시대의 교육을 무효화시키겠다는 열정으로 경성대학 1학년에 입학한 차교수는 온갖 고생을 겪으며 정치학자로서의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으며 민족주의에 대한 이론적 작업을 착실히 쌓았다. 그러나 차교수는 “민족을 말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고. 이승만 정권 아래에서는 학계의 풍토가 ‘국제화’라는 미명에 사로잡혀 민족문제를 거론하는 차교수를 “유행에 뒤진 보수반동자”로 몰기 일쑤였다. 더욱이, 군사정권 수립 이후에는 민족주의를 정권유지의 이데올로기로 탈색시키자 차교수는 이를 ‘사이비’ 민족주의라고 정의하면서 맹공을 펼치게 이른다.

“민족주의는 역사적 상황이나 추진세력에 따라 형태나 기능이 다르기 마련입니다. 이런 다의적 해석이 가능한 민족주의를 저는 일단 민족의 통일, 독립 및 발전을 지향하는 이데올로기와 운동을 총칭하는 것으로 사용합니다.”

차교수가 이번 책을 통해 새삼스럽게 강조한 우리 민족의 역사적 과제는 ‘민족통일’이다. 그러나 민족에 대한 감상적이고 심정적인 접근을 강력히 비판하는 차교수는 조소양선생이 주장한 ‘민족적 계급론’에 강한 호감을 나타낸다. 식민지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민족세력의 대동단결을 꾀한 이 이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차교수는 통일의 견인차를 중간층이 중심이 된 민주화의 진전에서 찾고 있다. 반사회적이고 반민족적인 세력을 제외한 가운데 모든

계급을 포괄하는 중도적 노선이 통일을 가시화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주장이다.

“요즘의 젊은이들이 들으면 다분이 ‘낡은 사고’라고 논박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감을 잃은 급진적인 통일논리는 중산층을 우경화 시킴으로써 그 길을 더욱 어렵게 한다는 역사적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원로’답지 않게 변혁세력의 논쟁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차교수는 그들의 행동을 이해는 하지만 교조적인 사고방식은 비판한다고. 그래서 차교수는 후학들에게 저명한 저널리스트인 월터 리프만의 이야기를 자주한다. 대세에 대한 무비판적 동조가 바로 기회주의인 것이고 지성인은 항상 대세를 비판하는 의식적 역균형을 꾀해야 한다는 것이다.

## “남한의 민주화가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

“최근 공산권의 변화가 보여주듯 독재로 정권이 부패, 명분과 실재가 크게 괴리될 때에는 어떤 형태의 정권이든 민중들의 저항에 부딪치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권력은 유리관속에다 놓고 국민들이 감시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사회민주주의에 두고 있다고 밝히는 차교수는 민족주의의 내용을 평등과 사회정의로 가치로 하는 사회민주주의로 채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입장에서 차교수는 남한의 민주화 진행은 동서독 관계의 변화에서 볼 수 있듯, 북한을 통일의 장으로 이끌어 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거듭 강조한다.

停年の 의미가 좀처럼 다가오지 않는다는 차교수는 오히려 원고청탁과 강연준비 등으로 더 바빠졌다고 비명. 앞으로의 저술계획은 삼부작이 될 한·일·미 비교 작업이라고 밝히는 차교수는 이 비교작업을 통해 재생적인 근대화 성공의 내재적인 원인을 밝히려 한다고.

“이 계획은 매우 각별한 의미가 있는 작업입니다. 국제정세의 장기적인 변화 속에서 미국이 동북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축소해 갈 것이 확실한 가운데 일본은 우리의 경제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힘의 공백을 자주적으로 메꾸지 못할 때 우리민족은 또 한차례의 민족적 수모를 당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문화교류가 갖는 일본의 저의를 날카롭게 지적하는 차교수는 이 작업이 헤이해진 우리의 민족적 무장을 재충전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권우 기자